

# “Bartleby, the Scrivener” 세계의 갈등: *Moby-Dick*과 *Pierre, or the Ambiguities*와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김진경

## 1. “Bartleby, the Scrivener” 해석의 어려움

“Bartleby, the Scrivener”는 “희극적 어조로 위장하여 서술되는, 단순한 이야기로 위장한 작품”이라는 Martin Pops의 지적처럼,<sup>1)</sup> 희극적으로 서술되고 있는 단순한 줄거리 속에 내비치는 심각한 의미의 가능성이 독자들을 당혹케하는 작품이다. 그래서 마치 아무런 특징도 없는 벽을 바라보고 있는 Bartleby처럼, 그리고 그러한 Bartleby를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해보려고 애쓰는 화자처럼, “Bartleby”의 독자 역시 언어와 행동의 세계에서 멀어져가는 필경사 Bartleby의 ‘이야기 없는’ 이야기와 그러한 Bartleby에 대한 화자의 해석을 해석해 보려고 시도해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까지 산출된 이 작품에 대한 비평들은, 심지어 같은 경향의 비평들의 경우에도, 서로 많은 부분이 상반되고 모순된 상태로 공존하면서 또한 그 나름대로는 설득력있는 해석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Newton Arvin은 “‘Bartleby’는 비록 그 규모가 작기는 하지만 하나의 전체적인 집단을 이루는 의미들을 시

---

이 글은 대우 재단 장학 사업의 지원을 받아 쓰여졌음.

1) Martin Leonard Pops, *The Melville Archetype* (Kent: The Kent State University Press, 1970), p. 121.

사해 주는 특징을 가졌으며, 그 중의 어느 한 의미도 그 함축된 의미들을 모두 설명할 수는 없다”고 말하고 있기도 하다.<sup>2)</sup>

이러한 “Bartleby” 비평의 현 상황은 우선 작품 자체의 모호함에 기인한다. 그리고 그 모호함에 있어서 “Bartleby”는 “모호함들 (the Ambiguities)”이라는 부제가 붙은 작품 *Pierre, or the Ambiguities*를 오히려 능가한다. *Pierre* 결말부분에 나오는 “모든 것이 끝났지만 당신들은 그를 모른다.”<sup>3)</sup>라는 Isabel의 대사에는 “복잡하게 엉켜 있는 거미줄과도 같은 삶”에서 주인공 Pierre의 깊은 내면의 심리적 동기와 선악의 판단을 분명하게 분류해 낼 수 없으며 더욱이 그것을 언어와 문학으로 제대로 재현해 낼 수 없다는 작가의 인식이 드러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어디에 도달 하든지 개의치 않고 인간 내면의 동굴 속을 흐르는 강을 따라가며” (*Pierre*, 107) Pierre의 내면을 탐색하고 있는 전지적 화자를 통해서, 독자들은 그의 갈등과 행동 동기의 모호함, 인식의 한계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그래서 궁극적으로 독자가 겪는 *Pierre, or the Ambiguities*의 “모호함들”은 그러한 문제들에 대한 작가의 판단을 해석하고 자신의 판단을 내리는 과정에서 의 모호함이었던 것이다. 이처럼 인생 자체의 모호함을 드러내 주기 위해 그 심리가 살살이 파헤쳐지는 인물인 Pierre보다, “모호함들”이라는 부제가 오히려 더 어울릴 듯한 인물은 Bartleby이다. 그 자신의 한계를 가진 화자는 Bartleby를 외부에서 관찰하기만 할 뿐 그의 내면에 접근하지 못하고, 그의 과거에 대한 정보는 그의 침묵 속에 묻혀 있으며 그의 극단적인 행위, 혹은 행위

2) Newton Arvin, *Herman Melville* (London: Methuen & Co. Ltd, 1950), p. 242.

3) Herman Melville, *Pierre, or the Ambiguities*, Harrison Hayford Ed. (Evanston: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1971), p. 362. 이하 이 작품에서의 인용은 *Pierre*로 표기하고 쪽수만 밝힘.

의 거부의 동기 역시 그의 죽음과 함께 영원한 수수께끼로 남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Bartleby의 죽음 이후에 이러한 ‘설명할 수 없는’ Bartleby를 설명해 보려는 화자의 시도는 그러한 과정에서 그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며 인류 공통의 문제를 제기하지만 “아, Bartleby여! 아, 인류여!(Ah, Bartleby! Ah, Humanity!)”<sup>4)</sup>라는 그의 마지막 외침은 Bartleby 만큼이나 모호한 것이어서, 그가 깨달은 것의 내용을 독자에게 명확하게 전달해 주지 않는다. 결국 “Bartleby”의 모호함은 Bartleby의 내면, 화자의 내면의 변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들에 대한 작가의 판단이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은 데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마치 *Moby-Dick*의 Doubloon처럼, 그리고 Pierre의 아버지의 초상화처럼, 화자와 Bartleby에 대한 해석들은 실로 다양하기만 하다. 화자는 “이기주의적인 악한”,<sup>5)</sup> “브루주아의 속물”,<sup>6)</sup> “인간의 한계 내에서 기독교적인 자비를 실천하는 관용적이고 인간적인 사람”<sup>7)</sup> 등 다양한 도덕적 평점을 함께 받고 있으며, Bartleby는 “브루주아의 교육을 철저히 따르다 희생당한 완벽한 학생”<sup>8)</sup>에서부터 “저의 구세주와 유사한 성인”,<sup>9)</sup> “구세주”<sup>10)</sup> 등으

4) Herman Melville, “Bartleby, the Scrivener”, *The Piazza Tales and Other Prose Pieces*. Harrison Hayford et al. ed. (Evanston: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and the Newberry Library, 1971). p. 45. 이하 이 작품에서의 인용은 “Bartleby”라고 표기하고 쪽수만 밝힘.

5) William Bysshe Stein, “Bartleby: The Christian Conscience”, *Melville Annual* 1965, pp. 104-5. Anderson, “Form and Meaning in Bartleby the Scrivener”, *Studies in Short Fiction*, vol. 18, no. 4 (fall 1981), p. 384에서 재인용.

6) Stephen Zelnick, “Melville’s Bartleby, The Scrivener: A Study in History, Ideology, & Literature”, *Marxist Perspectives*, vol. 2, no. 4 (winter 1979/80), p. 81.

7) Harold Schechter, “Bartleby the Chronometer”, *Studies in Short Fiction*, vol. 19, no. 4 (fall 1982), p. 361.

8) John Green, “Bartleby, the Perfect Pupil”, *ATQ*, New Series 7: 1 (March 1993).

로까지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는 것이다. 다양할 뿐 아니라 서로 모순되기까지 한 이러한 해석들의 미로에서 벗어나 “Bartleby, the Scrivener”에 대한 좀 더 타당한 이해에 이르려는 시도의 한 방법은 아마도 그것을 *Moby-Dick*, *Pierre* 등에서 드러나는 Melville의 전반적인 관심의 맥락 속에서 살펴보는 것일지도 모른다. 왜냐 하면 이 세 작품은 1950년에서 1953년에 걸쳐서 연이어 저술, 발표된 작품이며 그 집필 시기가 밀접한 것만큼이나 동질적인 관심사로 연결되어 있음이 감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Bartleby, the Scrivener”를 이 작품들의 맥락에서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아마도 이들 사이에서의 공통점과 차이점들을 통해 Melville의 주된 관심과 그러한 관심에 대한 Melville의 태도의 변화 등을 알 수 있으며 Melville의 문학 세계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조망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 2. Melville 세계의 ‘벽’과 ‘깨뚫음’ 그리고 갈등들

Melville의 세계에서는 어떤 추구의 움직임과 그러한 추구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회의가 지속적으로 발견되는데, *Moby-Dick*, *Pierre, or the Ambiguities*, 그리고 “Bartleby, the Scrivener”에서는

---

pp. 65-75. Green은 Bartleby를 근면, 정직, 예법 등을 중시하는 19세기 교육의 완벽한 산물로 간주한다. 다른 이들이 그 교육을 절충적으로 따르는 반면 완벽주의자인 Bartleby는 그러한 규범을 완벽하게 실천하다가 회의를 느끼게 되며 자신이 사회에 속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점거 농성’을 한다고 그는 주장하고 있다.

- 9) John Seelye, *Melville: The Ironic Diagram* (Evanston: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1970), p. 98.
- 10) Bruce Franklin, *The Wake of the Gods: Melville's Mythology*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63), p. 126. Richard Kopley, “The Circle and Its Center”, *ATQ*, New Series 2: 3 (September 1988), p. 191.

이러한 모티프가 벽을 꿰뚫어 보려는 시도라는 비유를 통해서 집 중적으로 드러나면서 동시에 그 작품들 사이에서 상당한 변화의 양상을 보인다. Nancy Simmons는 Melville이 Truth를 묘사하는데 사용한 이미지가 1850년의 도망가는 “겁먹은 흰 암사슴”에서 1851년의 “그 깊이를 짚 수 없는 흰 고래”를 거쳐 1852년의 “피라미드의 중심에 있는 끔찍한 빈 방(appallingly vacant central room of the pyramid)”으로 변화하는 과정이 궁극적인 진리에 도달하는 가능성에 대하여 회의적이 되어 가는 Melville의 변화를 반영해 준다고 지적한 바 있다.<sup>11)</sup> 그런데 그러한 회의적인 방향으로의 변화는 벽의 이미지가 사용되는 양상을 통해서도 감지되는 것이다. 진리에 대한 Melville의 글에는 이러한 변화하는 이미지들과 함께, 혹은 그것과 연관되어 벽의 이미지가 일관되게 발견되는데, 이것은 점점 더 중심적인 역할을 맡으면서 그 벽을 꿰뚫을 수 없다는 점이 더욱 강조되는 변화를 보이기 때문이다. “겁먹은 흰 암사슴”으로 진리의 모습이 비유되고 있는 1850년의 “Hawthorne and His Mosses”에서 광분한 Lear는 벽과 같은 가면을 “찢고” 진실을 말할 수 있었지만,<sup>12)</sup> *Moby-Dick*에서 향유 고래의 머리는 “가장 힘센 인간이 던진 가장 뾰족한 작살도, 가장 날카로운 창도 힘없이 튕겨져 나오는”(Moby-Dick, p. 285) “무감각하고 막다른 벽(a dead, blind wall)”(Moby-Dick p. 284)으로 비유되고 있으며, Ahab은 *Moby Dick*을 벽으로, 자신을 그 벽에 갇힌 죄수로 묘사한다.<sup>13)</sup> 한편 *Pierre*에서도 허구의 세계를 뚫고 어떤

11) Nancy Craig Simmons, “Why an Enthusiast? Melville’s *Pierre* and the Problem of the Imagination”, *ESQ*, vol. 33(3rd quarter 1987), pp. 161-2.

12) “Tormented into desperation, Lear the frantic King tears off the mask, and speaks the sane madness of vital truth.” “Hawthorne and His Mosses”, *The Piazza Tales and Other Prose Pieces*. Harrison Hayford Ed. (Evanston: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1971), p. 244.

한 절대적인 가치에 도달하려는 시도를 벽에 부딪히는 모습으로 반복하여 그리고 있는데,<sup>14)</sup> 그는 실제로 감옥에 갇힌 죄수로서 인생을 마감한다. 그리고 “Bartleby”에 오면 벽은 그 부제에서부터 시작하여 화자 사무실의 구조, Bartleby의 “무감각한 면벽의 몽상(dead-wall reveries)” (“Bartleby”, p. 29), 그리고 감옥에서 벽을 바라보고 죽은 Bartleby의 최후에 이르기까지 작품의 중심적인 요소로서 자리잡게 되는 것이다.

Melville의 고래가 “우주의 광활함, 비인간성, 그 동물적인 혹은 수수께끼 같은 무감각함”을 표현해 준다고 Borges는 언급한 바 있다.<sup>15)</sup> 그런데 이러한 고래의 특성은 그 섭리의 비밀을 감춘 세계의 상징으로서 벽의 이미지로 연결된다. 예컨대 Ahab은 *Moby Dick*을 세계의 비밀을 그 뒤에 감춘 “마분지로 된 가면(pasteboard masks)”이라고 하며 고래의 드높은 이마, 얼굴이라고 할 수 없는 얼굴 등 아무런 특성이 드러나지 않은 고래의 속성에 주목하고 분노하며, 그러한 고래를 파악하려는 노력을 76장의 제목처럼 *Battering Ram*이라는 벽을 부수는 성 공격용 대포의 시도로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Battering Ram*의 이미지는 *Pierre*에서도 다시 찾아볼 수 있다.<sup>16)</sup> 그런 관점에서 Martin Pops는 Ahab, Pierre, Bartleby의 탐색을 “현실적 실재(Secular Reality)”를 뚫고 “절대적 실재(Absolute Reality)”를 파악하려는

13) “How can the prisoner reach outside except by thrusting through the wall? To me, the white whale is that wall, shoved near to me. Sometimes I think there’s naught beyond.” (*Moby-Dick*, p. 144)

14) *Pierre*, p. 171, p. 346.

15) Jorge Luis Borges, “Prologue to Herman Melville’s *Bartleby*”, *Herman Melville’s Billy Budd, ‘Benito Cereno,’ ‘Bartleby the Scrivener,’ and Other Tales*, Harold Bloom ed. (New York: Chelsea House Publishers, 1987), p. 7.

16) *Pierre*, p. 346.

시도로서 정의하며, 벽의 이미지가 “현실적 실재”의 상징으로 작품들에서 공통적으로 쓰이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sup>17)</sup> 그러나 이와 동시에 그 세계를 인식하려는 인간과 관련하여서 벽은 언어와 주관성의 작용이 만들어 내는 의식의 감옥을 벗어날 수 없는 인간 한계의 상징이기도 하다.<sup>18)</sup> *Moby-Dick*에서 그 벽 너머에 아무 것도 없을 가능성을 생각하는 Ahab의 회의나 *Pierre*에서 세계는, “성충화된 표면들”로 이루어졌을 뿐이라는 화자의 인식은, 곧 이러한 외적인 세계를 텍스트로 하여 그 배후의 영적 의미를 읽어 내려는 시도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만을 발견하는 Narcissus적 곤경에 대한 Melville의 인식을 드러내 준다. 결국 *Moby-Dick*을 시작하면서 Ishmael이 Narcissus의 신화를 “모든 것에 대한 열쇠” (*Moby-Dick*, p. 14)라고 했던 것처럼, 물의 표면을 너머 그 깊이를 보려는 노력, 벽을 꿰뚫고 그 배후의 존재를 파악하려는 시도는 Narcissus적인 한계 때문에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인식이 *Pierre*을 해석하는 열쇠이기도 하며, “Bartleby”의 벽에 대한 강박증은 바로 그러한 작가의 회의가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넓은 채광창 세로 틀의 흰색 내벽”과 그 반대 방향의 “다른 것에 가려지지 않고 온통 드러나 있는, 세월의 때가 묻고 항상 그늘져 있어 검어진, 높은 벽돌 벽” (“Bartleby”, p. 15)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묘사되는 화자의 사무실은 마치 흑백 사진처럼 흰색과 검은 색의 벽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희망이나 건강성을 상징해 줄 만한 ‘채광창의 흰 벽’은 “생동감(life)”을 결여한

17) Martin Pops, p. 68.

18) Leo Marx, “Melville’s Parable of the Walls”, *Herman Melville’s Billy Budd, Benito Cereno, “Bartleby the Scrivener” and Other Tales*, Harold Bloom ed. (New York: Chelsea House Publishers, 1987), p. 26. “permanent immovable part of the structure of things, comparable to man’s inability to surmount the limitations of his sense, perceptions, or comparable to death itself.”

것으로 묘사되고, 흰 고래 *Moby Dick*이 “어둠의 암흑(Blackness of Darkness)”(*Moby-Dick*, p. 18)을 상징하듯이 이 흰 벽도 검은 벽과 별다른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고는 암시되지 않는다. 이런 사무실에서 누구보다도 “벽을 살펴 볼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자리”에 배정된 *Bartleby*는 점차로 고용인으로서의 자신의 의무를 거부하고, 벽만을 응시하다가 결국은 뉴욕 시의 감옥으로 옮겨져 음식을 거부하고 높은 벽을 바라보며 희미해진 눈을 뜬 채로 숨을 거둔다. 이렇게 세계의 벽, 인간의 인식의 한계의 벽을 꿰뚫으려는 *Ahab*과 *Pierre*의 영웅적 시도는 이제 *Bartleby*에 이르러 가장 수동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들의 운명에는 이러한 현실적인 한계를 넘어 보려는 절대주의적인 추구는 그 결과로 고통과 마비, 그리고 파멸을 수반한다는 작가의 인식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현실적 실재’를 넘어 ‘절대적 실재’로 나아가려는 꿰뚫음의 움직임과, 그 시도의 가능성에 대한 회의와 함께 더욱 강조되어 가는 ‘벽’의 이미지는 *Melville* 세계를 짜나가는 북과 배틀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그러한 절대주의적인 움직임이 현세에서 가져올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Melville*의 인식은 철학적인 차원을 넘어 사회에서 인간이 취해야 할 삶의 양식, 도덕률은 과연 어떤 것인가라는 보다 구체적인 고민과 갈등으로 이어진다. 즉, 편의주의적이고 상대적인 도덕률에 따라 살아가는 사회에서 진리에 대한 절대적 추구나 실천이 성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동료 인간들과의 관계에서 비극적 결과만을 초래할 뿐이라면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갈등이 *Melville*의 세계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이러한 절대주의적인 추구하고 상대주의적인 삶의 양식 사이의 갈등은 *Pierre, or the Ambiguities*에서 “지방시와 천문시(Horologicals and



Chronometricals)”라는 제목의 팸플릿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 허구의 팸플릿을 통해서 멜빌은 그의 세계를 관통하는 갈등, 즉, 절대적인 진리와 가치를 추구하려는 꿰뚫음의 욕망과 그러한 추구가 실제 삶에서 가져 올 수 있는 파멸에 대한 경계라는 복합적이고 양면적인 태도를 사회적인 맥락에서 정리해 보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 팸플릿은 세계의 어느 곳을 가든지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그리니치 시간에 따르는 천문, 항해용의 “천문시”와, 각 지역의 시차를 적용한 상대적인 시간인 “지방시”를 대척점에 놓고, 전자를 산상수훈과도 같은 하늘의 진리에, 그리고 후자를 인간 사회에서의 상대적인 규범으로 비유하면서 인간이 이 두 가지 중 어느 것을 행위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가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팸플릿의 허구적 저자 플린리몬(Plinlimmon)은 중국에 사는 사람이 그리니치 시간에 맞추어 생활을 한다면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잠자리에 드는 것과 같은 여러 가지 터무니없는 오류들을 범하게 될 것이라고 이러한 갈등의 예를 들면서, “지키지 못할 절대적 진리를 제시하여 인간들을 도덕적인 포기나 자기 기만, 혹은 위선이나 공개적인 무신론에 빠뜨리지 말고”(Pierre, p. 215) 실행 가능한 정도의 목표를 줌으로써 세상을 개선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고결한 편의주의(virtuous expediency)”(214)를 따르지 않고 “다른 존재, 어떤 대의 명분 혹은 어떠한 자부심을 위해서 무조건적이고 완전한 자기 희생”(214)을 감행했을 경우에 초래될 수 있는 “비탄과 죽음”에 대한 플린리몬의 경고는 바로 Ahab, Pierre, 그리고 Bartleby의 운명을 설명해 준다. 이처럼 “지방시와 천문시”의 팸플릿은 절대주의적인 추구속에서 “이상하고 독특한 우행들과 죄악들”을 범하고 지상의 가치를 따라 움직이고 있는 사회로부터 배척당하는 이들의 문제에 대한 예리한 분석으로 제시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상대주의적 가치를 수용할 것을 촉구하는 플린리몬의 주장과 작가 Melville의 관점을 어떠한 방식으로 연결시켜야 할 것인가라는 점은 중요하면서도 간단치 않은 문제이다. Melville이 이 팸플릿을 자신의 관점으로 말하고 있는지 혹은 풍자적인 비판으로 제시하고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곧 작품들의 해석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이자 그의 세계관 자체에 대한 판단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인데, 그것은 상당히 모호한 방식으로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평계도 이것을 “Melville의 철학적인 소견들에 가장 근접한 기술적이고 학문적인 진술”로 간주하는 진영에 대하여 물질적인 가치만을 중시하는 사회에 대한 풍자로 보는 견해가 팽팽히 맞서 있는 상황이다.<sup>19)</sup> 실로 “소유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그것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기독교 국가들”에 대한 플린리몬의 비판은 Melville의 초기작들부터 일관되게 드러나 있는 기독교도들의 허위, 특히 물질적인 집착에 대한 비판과 동일한 태도이다. 또한 “세계는 거짓들로 흠뻑 젖어 있고” “이 세계는 하나의 거짓말”인 상황에서 “우리 신의 유일한 목소리인 그 심오한 침묵”(208)의 의미를 읽어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플린리몬의 주장 역시 Melville과 같은 관점을 드러낸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플린리몬의 편의주의적 경향, 그리고 도덕적 선택의 기준을 “이익”이라는 경제적 가치에 종속시키는

19) 전자의 관점을 취하는 비평들은 Herbert Schneider, *History of American Philosophy* (New York, 1946), Newton Arvin, *Herman Melville* (London: Methuen & Co. Ltd., 1950), Tyrus Hillway, “Pierre, the Fool of Virtue”, *American Literature*, vol. 21, no. 2 (May 1949), pp. 201-11 등이 있으며 후자의 경우는 Lawrence Thompson, *Melville's Quarrel with God*, Brian Higgins, “Plinlimmon and the Pamphlet Again”, *Studies in the Novel*, vol. 4, no. 1 (spring 1972), pp. 27-37 등이 있다.

태도는 바로 그가 비판하고 있는 물질주의적인 기독교 국가들의 위선을 스스로 드러내면서 “Bartleby”의 화자의 모습을 상기시켜 준다. 더욱이 “모자를 들어올리면서 우아하게 인사하고 부드럽게 웃는, 놀랍고도 신비하리만치 냉정하고 자비심이 없어보이는” (290) 저자 플린리몬의 모습 또한 그 팸플릿의 내용을 Melville의 인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주저하게 만든다.

이처럼 플린리몬의 철학은 작품의 전체적인 의미와 중심적인 연계성을 가지면서도 또한 그것을 어떠한 방식으로 연결시켜야 할지는 확실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이 팸플릿이 Melville의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거나 혹은 하나의 풍자로 제시되었다는 해석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때 작품에서 배제되어야만 하는 요소들을 포괄할 수 있는 보다 타당한 관점을 우리는 “나에게 그것은 문제 해결의 방법이라기 보다는 문제를 훌륭하게 설명해주는 재진술처럼 보였다.” (210)라고 고백하는 화자의 태도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 같다. 즉, 우리는 이러한 플린리몬의 주장을 통해서 Melville이 어떠한 확정적인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기 보다는 자신이 이 작품에서 탐색하고 있는 중심적인 갈등 그 자체를 보다 명확하게 제시해 보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절대적인 도덕률과 상대적인 삶의 양식 사이의 갈등에서 Melville이 제시하는 관점은 과연 어떤 것인가에 대한 해답은 지방시적인 사회를 배경으로 한 천문시적인 추구의 궤적을 따라가면서 작품들 속에서 구체적으로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Bartleby, the Scrivener”의 경우 화자인 변호사 사무실은 지방시적인 사회이다. 지상의 법률을 유지하는데 봉사하는 것을 생계로 삼는 이 사회에서 Turkey와 Nippers는 지방시적인 삶을 회극적으로 보여 준다. 그들의 행위와 판단의 기준이 어떠한 절대적

이고 항구적인 가치가 아니라 때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인 것이라는 점은 그들의 행위가 시간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에서 드러난다. “태양과 함께 가장 높이 떴다가 그것과 함께 지고 다음날 다시 뜨고 절정에 달했다가 지는”(“*Bartleby*”, p. 15) Turkey와 Nippers는 정확하게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그 시간에 따라 기질과 태도, 의견까지도 바뀌는 것으로 묘사된다. 화자는 사무실의 규칙을 따르지 않는 *Bartleby*에 대한 의견을 이들에게 두 차례에 걸쳐서 물어 보는데, 오전의 경우 Turkey는 관대한 판단을, Nippers는 과격한 판단을 내리고, 며칠 후의 오후에는 그 반대의 의견들을 제시함으로써 그들의 의견과 판단이 어떤 내적인 가치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편의주의적인 것임을 드러낸다. 그리고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변호사인 화자 또한 자신의 안락함과 세상의 여론을 중시하면서 자신의 삶을 희생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들을 수용하고 관용하며 그 세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사회에 홀연히 나타난 *Bartleby*는 이 세계의 규칙과 질서를 깨뜨리면서 갈등을 일으키기 시작한다. 필사본을 원본과 대조하는 일을 거부함으로써 Turkey와 Nippers에게 미움을 받기 시작하는 *Bartleby*는, “상식적 관습과 상식”(“*Bartleby*”, p. 22)에 의거한 이 세계의 관습을 거부하면서 질서를 깨뜨리고 화자의 전제(assumption)들을 무너뜨린다. 그러나 이러한 *Bartleby*의 삶을 천문시적인 것으로 규정하려는 시도는, 절대적인 실재를 파악하려는 천문시적인 삶을 추구하다가 파멸한 Ahab이나 Pierre과 그를 비교할 때 난관에 부딪히게 된다. Ahab이 추구하는 “물에서 떠남(landlessness)”이나 전통과 관습의 제한을 넘어서서 절대적인 인식과 절대적인 가치를 추구하며 Isabel에 대한 “완전하고도 무조건적인 자기 희생”을 실행하는 Pierre과는 달리, *Bartleby*의

경우는 일과 음식과 대화 등을 거부하는 것 뿐, Ahab이나 혹은 Bartleby와 상당히 유사한 상황에 처했던 Pierre이 보여 주었던 어떠한 가시적인 움직임도, 주장도 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또한 다른 각도에서 보면 Bartleby의 삶은 Plinlimmon의 팸플릿이 언급하고 있는 사회 참여나 빈민 구제 같은 도덕적인 천문시를 넘어서, 육체와 물질적 세계 자체의 한계를 거부한 영혼의 천문시이며, 그것은 “차용증서들과 저당증들과 부동산 권리증서들”(“Bartleby”, p. 14)의 세계에서 그러한 언어를 거부하는 언어의 천문시로 구체화되고 있다고 할 수도 있다.<sup>20)</sup>

*Moby-Dick*의 Ishmael, 그리고 *Pierre*의 화자가 보여주었던 언어에 대한 관심, 특히 언어의 자의성과 그러한 한계를 가진 언어가 오히려 강력한 허구를 구축하여 인간의 의식을 감금하는 현상에 대한 관심은 Bartleby에 와서 이러한 언어에 대한 전면적인 거부로 이어지고 있다. 이전에 Bartleby가 근무했던 Washington의 Dead Letter Office는 “생명을 주려는 사명을 가졌지만 죽음으로 치달리는 편지들(On errands of life, these letters speed to death)” (“Bartleby”, p. 45)이 상징하는 바 진정한 의사 소통의 가능성을 실현하지 못하고 그 활력을 상실한 ‘죽은 언어’를 다루는 곳이다. 수신자를 찾지 못하고 이곳에서 불태워지는 편지들은 그것이 절망한 사람에게 희망과 용서를, 궁핍한 사람에게 자비를 전해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것이기에 더욱 절망적이며, 이러한 작업에 참여하였던 Bartleby는 “이 세계에서 그러한 생명의 가능성을 가진 원본들은 상실되고 죽음의 복사본만이 그 자리를 대치고 있다는 가능성”을 느꼈을 수 있는 것이다.<sup>21)</sup> 더욱이 필경사라

20) Clark Davis, *Weighing Words: Body and Language in Melville's Later Works*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uffalo, Ph.D. Dissertation, 1992), p. 107.

는 그의 현 직업은 문자 자체에 대한, 그리고 언어 그 자체에 대한 완전한 굴복을 요구하며 인간의 정신에 독재적인 힘을 행사하려 하는 것으로 파악될 수도 있다.<sup>22)</sup> 이러한 두 가지의 직업을 거친 **Bartleby**의 절망은 언어 그 자체로부터의 소외의 징후이며, 그는 필사를 거부하고 신문마저 읽지 않으면서 그 스스로도 일상적인 언어의 세계로부터 멀어져 간다. 그의 몇 마디 특징적인 말들과 오랜 침묵은 인간을 연결해 주는 언어 행위의 허무를 깨달은 **Bartleby**의 인식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하는데요. (I would prefer not to.)”라는 그의 특징적인 상용구는 힘을 상실한 언어, 욕망의 금욕적인 부채를 드러낸다. “부유하는 조건적 상태, 의지적인 무의지(floating condition, willful unwillingness)”<sup>23)</sup>를 담고 있는 이 역설적 문장은 **Miller**가 주장하는 것처럼 어떠한 도덕적, 심리적 혹은 사회적 태도도 언어를 통해서 드러내기를 거부하는, 혹은 드러낼 수 없다는 **Bartleby**의 언어에 대한 태도를 보여 주는 “죽은 언어(Dead Letter)”인 것이다.<sup>24)</sup> “인간의 의지가 들어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치 훈련된 새가 흉내내고 있는 것 같은 자동적인 반복에 불과한 이 어귀는 “나는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I am not particular.)”라는 **Bartleby**의 또 다른 특징적인 말과 더불어, 외면적으로는 대화를 하고 있지만 어떠한 인간적인 의지도 드러내

21) John Carlos Rowe, *Through The Custom-House* (Baltimore and London: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82), p. 126. “Bartleby is the figure of frustrated destinations that stands between sender and receiver, an author and his reader. Bartleby raises the possibility that the original text may be led astray, that the copy may take the place of its model.”

22) Lewis H. Miller, Jr. “Bartleby and the Dead letter”, *Studies in American Fiction*, vol. 8, no. 1 (spring 1980), p. 2.

23) Clark Davis, p. 110.

24) Lewis H. Miller, Jr. p. 4.

지 앎음으로 해서 **Bartleby**를 정의할 수 없게 만드는 그의 침묵과 동일한 언어의 "막다른 벽(Dead Wall)"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sup>25)</sup> **Miller**는 이러한 **Bartleby**의 언어가 "수동형 동사, 추상명사, 삼인칭 문장, 다중 부정" 등으로 그 자신을 인간적 접촉으로부터 끊임없이 절연시키는 특징을 보이는 화자의 언어와 궁극적인 유사성을 가졌다고 암시하고 있다.<sup>26)</sup> 그러나 다른 각도에서 보면 **Bartleby**의 언어는 그를 둘러싼 세계의 언어에 대한 거부와 반항이라고도 할 수 있다. **Pierre**이 언어의 허구성과 그 허구가 다시 실재를 침범하는 양상을 깨닫게 되는 그의 탐색의 마지막 단계에서 언어를 버리고 폭력에 의존하여 세계에 자신의 존재를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주관적 내면을 가능한 한 배제한 **Bartleby**의 언어는 그것을 이루고 있는 관습과 제도,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는데 있어서의 주관성의 개입에 의한 현실 인식의 왜곡을 거부하려는 시도의 산물이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sup>27)</sup> 실체 없는 언어가 인간을 억압하는 현실은, **Bartleby**를 "부랑자(vagrant)"로 명명하고 감옥에 집어넣는 지상의 법률에 의해서 상징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전에 화자가 **Bartleby**를 감옥에 보낼 것을 고려하면서 그에게 불일 죄명을 고민하는 데서 드러나듯

25) Lewis H. Miller, Jr. p. 4.

26) Lewis H. Miller, Jr. p. 5 반면 그는 정확한 자료만 있으면 "full and satisfactory biography of this man"을 쓰는 것이 가능하다는 화자의 태도에서 언어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발견하며, John Jacob Astor의 이름을 발음하면서 금괴의 울림을 듣는다는 화자의 말에서 사물과 이름의 일치에 대한 Emerson적인 믿음이 회극적으로 표현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p. 7.

27) **Bartleby**의 언어를 선택적인 의지의 표현으로 본 다른 비평가로는 "Bartleby's choice to dwell with relative preference rather than universal assumptions"로 해석한 David Randall, "Neutered Narration and the Scriptive Fate of the Spirit of Resentment: Bartleby the Scrivener and Herman Melville", *Boundary 2*, vol. 15, no. 12(Fall 1986/winter 1987), p. 92.

이, **Bartleby**에게 해당 가능한 “부랑자”라든지 “확실한 부양책이 없는 사람”이라는 죄명은 사무실을 떠나려 하지 않는, 그리고 분명히 그 스스로를 부양하고 있는 **Bartleby**를 전혀 설명해 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부랑자로 **Bartleby**를 낙인찍어 감옥에 보내는 사회제도는 그것에 포용되지 않는 요소를 배척하고 억압하려는 목적으로 언어적인 독재를 행사하고 있으며 **Bartleby**의 침묵은 그러한 왜곡된 언어를 거부하는 강력한 의사 표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침묵 속에서 마지막에 벽을 바라보며 영원히 잠드는 **Bartleby**의 잠을 Davis는 두개의 언어의 세계 사이의 잠이라고 해석한다. *Pierre*에서 허구의 언어가 강력하게 실재를 대치하고 인간의 인식을 가로막는 벽으로서 작용하는 양상이 폭로되며 주인공은 그에 항거하다가 파멸하였다면, “**Bartleby**”의 세계는 그것에 대하여 주인공이 반항적인 의지로서 기만적 언어를 거부하는 세계이며, 그 뒤를 잇는 *The Confidence-Man*의 세계는 그 이중성과 혼란을 수동적으로 탐색하는 세계인 것이다.<sup>28)</sup> 이처럼 언어적 거부로 구체화되어 나타나는 **Bartleby**의 영혼의 천문시, 언어의 천문시는 그것이 구체적인 사회적 규범에 대한 적극적인 반발로서 가시화되지 않기 때문에 사회에 무해한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사회의 가장 근원적인 전제들을 부정하는 것이기에 가장 전복적인 힘을 가질 수 있다. **Bartleby**에 대한 화자의 다양한 반응 중에서 혼란감과 분노, 그리고 거부는 바로 이러한 **Bartleby**의 모습에 내재되어 있는 전복적인 힘에 대한 사회의 거부이며, 사회는 그것을 감옥이라는 제도로서 합리화한다. 결국 감옥은 그 벽이 상징하는 바 우주의 비밀을 감추고 인간의 의식을 감금시키는 세계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

---

28) Clark Davis, p. 114.



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상의 법이 그 규율을 깨뜨리는 사람에게 가하는 힘의 총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sup>29)</sup>

그러나 Ahab과 Pierre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Bartleby의 파멸도 어떠한 절대적인 인식에 이르려는 시도와 어떤 절대적인 가치를 추구하는데서 기인한 천문시적 영웅의 죽음, 예를 들면 *Moby Dick*의 Bulkington 같은 영웅적 파멸만은 아니다. 플린리몬은 이 지방시적인 사회에서 천문시적인 삶을 살려는 시도가 필연적으로 이상하고 독특한 우행과 죄악을 수반하여 비탄과 죽음을 초래하게 된다고 경고했었다. Ahab은 인간 고통의 근원을 제거하려는 그의 극한적인 시도의 과정에서 자신의 인간적인 측면을 억압하고 비인간화되어 가며 고립된 최후를 맞았으며, Pierre은 그를 둘러싼 세계의 허구성과 함께 “그토록 공고하다고 추정되던 인간 관계의 가상성(the mere imaginariness of the so supposed solidest principle of human association)”(142)을 알게 되면서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보호해 주려는 Lucy와 자신이 모든 것을 희생해 가며 사랑한 Isabel까지도 거부하고 분노 속에 파멸해 간다. Bartleby 역시 화자의 모든 인간적인 배려를 거부하고 심지어 자기의 집으로 가자는 화자의 제안마저도 일축해 버린다.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가정을 연상시키는 것들(humanizing domestic associations)” (“Bartleby,” p. 36)이 없는 빈 사무실이라는 상황이 아니었더라면 Colt와 Adams의 싸움이 살인까지 가지는 않았으리라 하는 화자의 분석은, 모든 인간적인 관계를 거부하고 밤이면 인적이 끊기는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는 Bartleby의 고립이 그의 극

29) Michael C. Berthold는 이 작품을 인간 의식을 조종하려는 제도의 총화로서의 감옥에 대한 연구로서 해석한다. “Melville’s own evaluation of prison as fact, figure and focus of power in mid 19 century America,” “The Prison World of Melville’s *Pierre* and ‘Bartleby’”, *ESQ*, vol. 33(4th quarter 1987), p. 237.

단적인 인간에 대한 거부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Saddle-Meadows**의 세계를 거부하는 **Pierre**의 경험에서 드러나듯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가정을 연상시키는 것들”에 대한 **Bartleby**의 거부는 근거 있는 것이지만, 비록 그러한 인간 관계가 허구일지라도 그것을 완전히 거부할 때 그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 즉, 화자에 대한 **Bartleby**의 거부는 화자의 계산적인 인간 관계를 고려해 볼 때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것이 이 세상의 전반적인 인간 관계의 피할 수 없는 한계일 경우, 인간에 대한 전면적인 거부는 그 자신의 고립과 파멸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Bartleby**는 화자가 제안하는 인간적인 배려가 조건 없는 자신의 희생에 근거한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그의 이익과 그의 사회적인 지위를 유지하려는 욕망에 의해 한계 지워진 것임을 알기라도 하듯이, “나는 당신을 압니다”, “나는 당신에게서 아무 것도 바라지 않습니다”(“**Bartleby**”, p. 45)라고 말하며 최후까지 그를 거부한다. 이처럼 동료들과의 의사 소통을 거부하고 궁극적으로 삶에서 물러나 침묵과 마비를 선택함으로써 **Bartleby**는 결국 그가 바라보는 벽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다.<sup>30)</sup>

부정적인 측면들이 드러나고 있는 인간 사회에 대한 **Bartleby**의 반항이 확보하는 독자들의 공감과 **Bartleby**의 극단적 고립과 마비, 석화되는 모습에 대한 독자들의 거리감은 바로 이 작품의 해석을 어렵게 하는 주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Bartleby**는 그의 “prefer”라는 말을 무의식적으로 따라하는 다른 필경사들에 비교하여 그의 의지에 있어서 확연한 차이를 가지며, 오직 그만이 인간을 세계와 단절시키는 상업적 사회에 대한, 비록 궁극적

30) Thomas R Mitchell, “Dead Letters and Dead Men: Narrative Purpose in *Bartleby the Scrivener*”, *Studies in Short Fiction*, vol. 27, no. 3(summer 1990), p. 337.

으로는 효과없는 것이었을지라도 진정한 위협을 제기한다.<sup>31)</sup> 그러나 또한 Marx가 지적하는 것처럼 Bartleby는 그러한 과정에서 Ahab이나 Hawthorne의 인물들처럼 인류에 등을 돌리는 치명적인 우를 범하는 자기 몰입과 망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Bartleby에 대한 평가가 어느 한편으로 확정지을 수 없어 독자들을 당혹케한다면 그러한 Bartleby와의 만남을 기록하고 있는 화자의 내면 세계의 변화는 모호한 추상적 어휘로 종결됨으로써 그 판단을 어렵게 한다. Bartleby가 화자의 삶에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가에 대한 단서를 우리는 우선 플린리몬의 팸플릿 속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왜 아무런 소용 없어 보이는데도 신은 때때로 이 세상에 (마치 별뿔뿔처럼) 천상의 천문시적인 사람을 내려 보내 이 세상의 모든 시계들이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밝히는가? 비록 세상에 대한 인간의 지방시적인 관념들이 이 지상에서는 충분히 성공적이더라도, 그것은 결코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것은 아니며, 신이 머무는 중심적인 그리니치의 시간은 이 세계와는 다소 다른 방법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때때로 인간에게 주려고 하기 때문이다.

But why then does God now and then send a heavenly chronometer (as a meteoric stone) into the world, useless as it would seem, to give the lie to all the world's time-keepers? Because he is unwilling to leave man without some occasional testimony to this: — that though man's Chinese notions of things may answer well enough here, they are by no means universally applicable, and that the central Greenwich in which He dwells goes by a somewhat different method from this world.

---

31) Leo Marx, p. 25.

(Pierre, p. 212)

Bartleby와 같은 천문시적인 인물을 지상에 보내는 것이 바로 인간의 지방시적인 관념들의 허구성을 깨우치려는 섭리에서라면, “Bartleby”의 이야기의 중심점은 또한 그러한 Bartleby에 반응하는 화자의 모습으로 옮겨갈 수도 있을 것이다. “모든 것에 현명하신 섭리의 어떠한 신비스러운 목적에 의해서 그에게 할당된” (“Bartleby”, p. 37) 인물로서 Bartleby를 받아들이는 화자는 플린 리몬의 “덕스러운 편의주의”를 삶의 규범으로 삼고 있는 평범한 인물이다. 그는 Bartleby와의 마주침에서 자신에 관한 한 가능한 한까지 그를 도와주지만, 모든 소유를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없어 실망하며 돌아섰던 부자 청년처럼 사회의 압력 속에서 그의 지위와 이익을 포기하지 못한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결국 그는 자신의 그러한 지방시적인 삶이 이 세상에서는 불가피한 것이고 오히려 적절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상 수훈과 같은 절대적인 기준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임을 깨닫게 된다.

“사회 계층의 중간에 위치하고, 행정적인 일상 업무에 파묻혀, 질서에 의존하는 활력 없는 삶을 사는, Astor<sup>32)</sup>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자”로서 “자본주의 사회의 전형적인 인물”<sup>33)</sup>인 화자는 인간 관계에서도 이익의 개념을 중요시하는 인물이다. 그는 “아주 안전한 사람(an eminently safe man)” (“Bartleby”, p. 14)이라는 평판을 받고 있으며, 그 스스로도 “나는 거의 화를 내지 않는다. 부정이나 불법행위에 대하여 위험한 분노에 빠지지도 않는다.”

32) John Jacob Astor는 최초의 독점산업주의자이자 신탁 경영 체제를 확립한 사람으로서 “뉴욕의 지주”로 비유되었다. Stephen Zelnick, p. 76.

33) Stephen Zelnick, p. 81.

(“Bartleby”, p. 14)라고 말한다. 이 화자에게 그의 필경사들은 궁극적으로 하나의 자본이자 도구로서 인식된다. 그가 필경사들을 평가하는 언어들, 즉, “나에게는 아주 가치 있는 사람(a most valuable person to me)” (“Bartleby,” p. 15), “그의 아침 시간의 노동의 가치를 귀하게 여겨(valuing his morning)” (“Bartleby”, p. 16) “나에게 아주 유용한 사람(a very useful man to me)” (“Bartleby”, p. 17) 등의 어휘들은 인간 관계에까지 파고 든 이익 중심적인 사고의 편린을 보여 준다. 또한 그는 Bartleby의 터무니 없는 행동을 수용하는 이유에 대해 “그것으로 내가 손해볼 것은 거의 없어, 거기다가 내 양심을 위한 달콤한 양식 한 조각을 내 영혼 속에 쌓아 놓는 일이기도 하고” (“Bartleby”, p. 24)라고 말한다. 그러한 화자의 태도가 자신에 대한 Bartleby의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주도권(wondrous ascendancy)” (“Bartleby”, p. 35)을 자기 자신과 사회에 합리화하는 전략적인 자기 아이러니(self-irony)<sup>34)</sup>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익의 개념이 그의 행동을 지배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인 것이다.

그러나 또한 그는 여러 비평가들이 주장하듯이 완전히 부정적인 인물로서 상정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는 그의 세계의 누구보다도 관대하고 사려 깊으며 타인의 상황에 동정적인데, 그러한 그의 성격은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Bartleby의 행동에 대하여 최대한의 인내와 수용을 하도록 작용하며 나아가 그는 Bartleby에 대한 완전한 이해에 도달한 것 같이 보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화자를 해석하는 어려움은 그의 이러한 두 가지 상반되는 측면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화자는 두 번

34) Dan McCall, *The Silence of Bartleby*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9), p. 125.

에 걸쳐서 *Bartleby*에 대한 깊은 공감과 함께 자신의 문제와 *Bartleby*의 문제를 연결시키는 통찰력을 보여 준다. 일요일의 빈 사무실에 있는 *Bartleby*를 본 후 화자는 Melville의 일관된 주제였던 세계의 드러나지 않은 어두움에 대한 인식에 이르는 것이다.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폐부를 찌르는 압도하는 듯한 우울함이 나를 사로잡았다. 이전까지는 기분 나쁘지만은 않은 슬픔 이외에는 경험해 본 적이 없었던 나였다. 지금은 같은 인간으로서의 유대감이 나를 저항할 수 없이 암울하게 만들었다. 형제애로 연결된 우울함! 왜냐하면 바틀비와 나는 둘다 아담의 자손들이기 때문이다. — 아, 행복은 빛을 따라 다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즐거운 것이라고 생각한다. 불행은 외따로 떨어져 숨기 때문에 우리는 불행은 없다고 생각한다.

For the first time in my life a feeling of overpowering stinging melancholy seized me. Before, I had never experienced aught but a not unpleasing sadness. The bond of a common humanity now drew me irresistibly to gloom. A fraternal melancholy! for both I and Bartleby were sons of Adam. ... Ah, happiness courts the light, so we deem the world is gay; but misery hides aloof, so we deem that misery there is none. (“Bartleby”, p. 28)

그러나 화자는 곧 “병들고 어리석은 머리에서 나온 망상들임에 틀림없는 — 이러한 슬픈 상상들(These sad fancyings — Chimeras, doubtless, of a sick and silly brain)” (“Bartleby”, p. 28)로 그 통찰을 규정함으로써 그것을 부정하고 만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 후 처음으로 자신이 예배에 참석할 자격이 없음을 인식하게 되는 화자는 *Bartleby*와의 접촉 때문에 자신이 이제까지 걸어온 길에서 벗어날까 두려워하게 된다.

“벗어남” “고립” “몹을 떠남(landlessness)”에의 두려움은 결과적으로 그 자신에 관한 한 Bartleby에 대하여 모든 것을 양보했던 화자로 하여금 사회의 여론에 굴복하여 Bartleby를 부인하도록 만들지만, 화자는 Bartleby의 죽음 후에 Dead Letter Office의 소문을 듣고서 다시 한번 Bartleby의 고립과 죽음에 대한 공감적인 인식을 보여준다.

내가 이 소문을 곰곰 생각할 때 나를 사로잡는 감정은 거의 표현할 수가 없다. 수취인 없이 죽은 편지들! 그건 마치 죽은 사람처럼 들리지 않는가? 천성적으로, 그리고 불운 때문에 창백한 절망에 빠지기 쉬운 사람을 생각해 보라. 끊임없이 이 ‘죽은’ 편지들을 다루고 분류하여 불에 태우는 것보다 그 절망을 더 고조시키기에 알맞은 직업이 어디 있으랴? — 생명을 주려는 사명을 가지고 이 편지들은 죽음으로 치달리는구나.  
아, 바틀비여! 아, 인류여!

When I think over this rumor, hardly can I express the emotions which seize me. Dead Letters! does it not sound like dead men? Conceive a man by nature and misfortune prone to a pallid hopelessness, can any business seem more fitted to heighten it than that of continually handling these letters, and assorting them for the flames? — On errands of life, these letters speed to death.

Ah Bartleby! Ah humanity! (“Bartleby”, p. 45)

이러한 화자의 마지막 외침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비평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Thomas Mitchell과 Graham Nicol Forest는 여기서 화자의 구원의 가능성을 보는데, Mitchell의 경우는 Bartleby를 그 치명적인 고립에서 구해 내려는 화자의 시도가 실패하는 과정에서 화자가 그 자신을

구해 내는 것을 이 작품의 중심적인 아이러니로 간주한다.<sup>35)</sup> 그에 따르면 *Bartleby*가 벽이라면 화자는 그 벽을 뚫는 풀이 되려고 하며, 죽음을 선택하는 *Bartleby* 대신 화자는 삶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Forest* 역시 *Bartleby*가 화자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인간 소외의 끔찍하고도 치명적인 결과이며, 변호사는 그것을 깨닫고는 “*Wall Street*를 따라 올라가 *Broadway*”로 향하는 구원의 길을 걷는다고 지적하고 있다.<sup>36)</sup> 그러나 화자가 *Bartleby*의 소외와 죽음에서 벗어나 편입되는 사회는 궁극적으로 *Bartleby*를 파멸시킨 기존의 “*Wall Street*”이며, 이익 위주의 삶과 안락을 중요시하던 화자의 삶의 양식이 *Bartleby*를 경험하고도 변하지 않았음은 작품이 시작되면서 독자에게 제시되는 자조적인 그의 자화상에서도 드러난다. 물론 피라미드처럼 묘사되는 감옥에서 화자가 발견하는 풀은 빈 석관이 들어 있는 *Pierre*의 피라미드보다 훨씬 더 희망적인 전망을 보여 주지만, *Bartleby*의 “나는 당신을 압니다.”라는 말이 단적으로 드러내듯이 이제까지 드러난 화자의 세계의 한계, 그리고 그것을 벗어날 수 없는 화자의 한계를 고려할 때 그 풀이 제시할 수도 있는 희망은 거대한 피라미드 속의 풀처럼 너무도 연약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한편 화자의 이러한 마지막 외침을 자기 기만적인 것으로 보는 비평가로는 *Hershall Parker*나 *Lewis H. Miller, Jr.*를 들 수 있다. *Miller*는 화자가 그의 서기들, *Bartleby*와 맺는 인간 관계가 그의 외침의 의미를 제한한다고 해석하며, 특히 마지막에 *Dead Letter*

35) Thomas R. Mitchell, p. 333.

36) “I answered nothing; but effectually dodging every one by the suddenness and rapidity of my flight, rushed from the building, ran up Wall street towards Broadway, and jumping into the first omnibus was soon removed from pursuit.” (“*Bartleby*”, p. 42)



Office를 Bartleby의 절망의 원인으로 제시하는 화자의 모습에서 Dead Letter Office 이상으로 그의 사무실에서 서기로 일하는 것이 더욱 절망적인 것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깨닫지 못하는 인식의 한계를 적절하게 지적하고 있다.<sup>37)</sup> 그러나 그러한 화자의 행동의 한계와 인식의 한계가 필연적으로 그를 악한이나 위선자로 만든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는 그의 사회의 누구보다도 Bartleby에게 사려 깊고 관대한 보살핌을 베풀었으며, 또한 그 사회의 누구보다도 Bartleby의 고립의 의미에 가깝게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그가 Bartleby가 요구하는 절대적인 희생을 회피했을 때 독자 역시 그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며 그러한 화자의 한계는 그에게만 특수한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 자체가 공유한 것이라는 것임을 깨닫게 된다. 그가 Bartleby에게 “무조건적인 자기 희생”을 베풀 수 없는 것은, “마음”과 “진리”만을 좇아 Isabel을 곤경에서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안락함을 버렸던 Pierre의 천문시적인 삶이 결국은 파멸을 불러올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인간과 인간 사회의 한계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아 바틀비여! 아 인류여!”라는 그의 마지막 외침은 비록 그것이 그를 구원하여 주는 해결의 깨달음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의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에 대한 깨달음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sup>38)</sup> 결국 인간은 절대적인 인식에 이르거나 절

37) Lewis H. Miller, p. 2.

38) “Ah, Bartleby! Ah, Humanity!”에 대한 다른 해석들로는 Water Anderson, “the essence of dilemma에 대한 인식” p. 393, Gordon Bigelow, “The Problems of Symbolist Form in Melville’s *Bartleby the Scrivener*”, *Modern Language Quarterly*, vol. 31, no. 3(September 1970), p. 351. “deep and genuine compassion” “Bartleby와의 관계가 I-It에서 I-Thou의 관계로 변화하였다”. John Seelye, pp. 98-9. “작가는 Bartleby가 인류와는 전혀 상관없다는 역설을 보여주고 있으나 화자는 그러한 사실에 대한 그 자신의 무지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대적 가치를 실천할 수 없으며, 그것은 *Bartleby*의 경우나 화자의 경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화자는 그의 인간적인 한계를 넘을 수 없었던 지방시적 인간이었고, 그의 마지막 외침은 바로 천문시와 지방시의 영역의 요구를 결코 조화시킬 수 없는 인류의 딜레마에 대한 절망적인 통찰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 3. Melville과 세계의 화해와 수용

자신을 가로막은 거대한 흰 벽 *Moby Dick*에 대한 Ahab의 분노와 그에 맞선 영웅적인 죽음, 절망한 Pierre의 환상 속에서 분노에 차 난공불락의 절벽에 자신의 몸을 부딪히고 있는 타이탄들의 반항과 석조 감옥 속에서의 Pierre의 자살을 거쳐 이제 *Bartleby*에서 우리는 벽에 압도당해 마비되어 버린 한 이상주의자의 최후를 본다. 그리고 이러한 이상주의자 *Bartleby*의 사회에 대한 거부는 Melville이 가장 진실한 이야기라고 했던 산상수훈과도 같은 어떤 절대적인 도덕률을 따를 수 없는 인간의 한계와 그러한 인간 세계에 대한 거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Bartleby*를 바라보는 작가의 시선은 그에 대한 비난이나 공감 중 어느 한 측면에만 고정되지는 않는 양면성을 보인다. 결국 *Moby-Dick*에서 “*Bartleby*”로 가면서 점차로 마비되어 가는 주인공들의 모습에는 한편으로는 천문시적인 절대적인 진리, 도덕률을 고집할 때 거의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자의적이고 독단적인 행동 양식과 인간 관계의 고립을,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상대적, 임의적인 도덕률의 허구성을 경계하면서, 과연 어떤 삶의 양식을 택해야 하는가에 대한 Melville의 갈등이 반영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즉, “거짓들로 이루어진 세상”을 거부하고 우주의 비밀, 인간 인식의 한계, 사회 제도의 억압의 상징으로서의 벽을 뚫어 보려

는 시도와 그러한 영웅적 행위가 “독특한 우행과 죄악”을 낳을 수 있다는 두 가지 상충하는 인식사이에서 그러한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어 이들 작품의 해석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Bartleby”의 결말에서 제시되었던 피라미드와도 같은 두터운 감옥의 들을 뚫고 나온 연약한 풀의 모습은 오랜 세월을 거친 후에 Melville의 마지막 작품 *Billy Budd, Sailor*에서 Captain Vere가 주장하는 바 전시의 군법이라는 가혹한 임시주의적 법률에 의해 처형당하면서도 그를 축복했던 Billy Budd가 보여준 인간 사회에 대한 수용과 이 두 가지 삶의 양식의 화해로서 구체화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 참고문헌

- Arvin, Newton. *Herman Melville*. London: Methuen & Co. Ltd, 1950.
- Melville, Herman. *Moby-Dick*. Hershel Parker ed. New York: W.W. Norton, 1967.
- \_\_\_\_\_. *Pierre, or the Ambiguities*. Hershel Parker & Thomas Tanselle ed. Evanston: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and the Newberry Library, 1971.
- \_\_\_\_\_. “Bartleby, the Scrivener”, *The Piazza Tales and Other Prose Pieces*. Harrison Hayford et al. ed. Evanston: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and the Newberry Library, 1987.
- Miller, Lewis H.Jr.. “Bartleby and the Dead Letter.” *Studies in American Fiction* Vol. 8, No. 1 (Spring 1980): 1-12.
- Mitchell, Thomas. “Dead Letters and Dead Men: Narrative Purpose

in 'Bartleby, the Scrivener' " *Studies in Short Fiction* Vol. 27, No. 3 (Summer 1990): 329-338.

Pops, Martin. *The Melville Archetype*. Kent: The Kent State University Press, 1966.

Zelnick, Stephen. "Melville's 'Bartleby, the Scrivener': A Study in History, Ideology, & Literature." *Marxist Perspective* Vol. 2, No. 4 (Winter 1979/80): 74-92.